

유족들 등치는 ‘장례식장 꼼수’

서울 주요병원 장례식장 10곳 조사

‘장사정보시스템’에 의무 고지불구
4곳만 식사 등 가격표 제대로 올려
일부는 실제가격과 달라 분쟁 발생

장례식장 간의 정보제공 항목이 달라서 가격비교가 어렵다고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건표)이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서울시내 주요 병원의 장례식장 10곳을 조사한 결과 식사와 음료 등의 가격을 가격표에 표시하지 않은 곳은 3곳으로 드러났다. 4곳만이 장사정보시스템(e하늘)에 가격을 제대로 알렸다. 10개 장례식장은 대신 입대료와 수수로 장례용품의 가격은 알리고 있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르면 장례식장의 영업자는 입대료와 수수로 장례용품의 가격은 물론 식사와 음료의 종류 및 가격 등을 가격표와 장사정보 시스템 e하늘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기준을 줘야 하지만 몇몇 장례식장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제공하는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도 나왔다.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경황이 없는 유가족과 비용을 놓고 추후 분쟁발생의 여지를 남겼다.

게다가 e하늘에서 제공하는 가격정보 항목이 병원 장례식장마다 달라 제대로 가격비교가 어렵게 만든 것도 문제다. 병원의 장례식장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정보를 제공한 곳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4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3곳은 일부만 가격정보를 제공했다.

상을 당하면 유가족들은 제한된 시간과 슬픔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장례식장의 감금이 영업에 불만을 가져도 해결할 여력이 없어 눈 뜨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장례식장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가격정보 제공 관련 법령 준수 ▲가격표와 e하늘 가격정보 통일 ▲가격정보 제공 항목의 표준화 ▲홈페이지를 통한 가격정보 제공 ▲장례서비스 관련 용어 순화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관세부처에 개선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장례서비스 가격정보 이용 가이드 및 병원 장례식장 소비자 만족도 조사결과 는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SKT, 장애인에겐 약정없이 할인…청년들에겐 데이터 혜택

사회적관심 필요한 고객 요금제 출시
다자녀 가구 셋째 자녀 요금 할인도

SK텔레콤은 연말을 앞두고 이달부터 청년과 장애인, 홀몸노인,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고객을 위한 요금제를 순차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는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채용정보사이트 ‘워크넷’ 이용 시 데이터 차감을 하지 않는다. 19일부터 6개월 간 사용 가능하다. SK텔레콤은 또 청각장애인 전용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기존보다 1.5배 확대하고, 보청기를 사용하는 고객을 위해 영상통화 제공량을 음성통화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시각장애인 전용 요금제에는 S

K텔레콤 고객 간 무제한 음성통화 혜택을 새롭게 추가한다.

개편되는 모든 장애인 요금제는 약정 없이도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순액형 요금제다. 홀몸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및 복지단체가 ‘T케어 요금제’를 신청하면, 기존 월 이용료 8800원에서 약 37% 할인된 55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또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18세 이하의 셋째 자녀부터 막내까지 매월 통신요금에서 5500원씩 할인을 해준다. 가족 고객(부모 중 1명과 3명 이상의 자녀들이 SK텔레콤 이용)은 내년 12월 전까지만 신청하면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병근 기자 dionys@donga.com



SKT가 데이터 제공량 확대, 음성통화 혜택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고객을 위한 요금제를 순차 출시한다. 사진제공 I SKT

‘갤럭시노트7사태’ 국내외 소송 움직임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사태가 국내외에서 소송으로 번질 조짐이다. 19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갤럭시노트7을 구입한 미국인 3명이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뉴저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데이터 유출 등 리콜 기간 중 발생한 경제적 손실

을 삼성전자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소송인을 모집해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후 추가 소송단도 모집기로 했다. 손해배상

미국인 3명, 리콜기간 피해보상 소송
국내서도 ‘1인당 30만원’ 소송단 모집

비는 1인당 30만원이며, 소송비용은 1인당 1만원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출시 초 발화사태를 빚은 갤럭시노트7의 전면 리콜을 결정했으며, 이후 교환제품이 또 다시 발화 논란에 휩싸이자 최근 환불과 단종을 결정했다.

김병근 기자

경제현장.jpg

홈플러스 ‘이너웨어 페스티벌’…3만원 이상 구매 땀 3000원 상품권



홈플러스는 11월2일까지 ‘이너웨어 페스티벌’을 연다. 500여 종의 이너웨어 기획 물량을 준비했으며,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3000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19일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고객이 이너웨어 페스티벌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I 홈플러스

초경량에 세련된 ‘M’…168시간 걸어볼까?

컨슈머블로그

머렐 초경량워킹화 ‘원식스에잇’

“슬슬 걸어볼까” 싶은 계절이 왔다. 이른 아침, 맑은 공기를 호흡하는 폐 속으로 밀어 넣으며 걷는 것도 좋고, 늦은 밤 이어폰을 귀에 깊숙이 꽂고 불빛한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를 들으며 걷는 재미도 나쁘지 않다. 워킹의 계절인 것이다. ‘원식스에잇(1STX8·12만9000원)’은 머렐이 가을·겨울 시즌을 맞아 내놓은 워킹화다. 워킹화치고는 이름이 독특하다. 원식스에잇은 168시간을 의미한다. 하루가 24시간이니 일주일을 곱하면 168시간이 나온다. 일주일 내내 신고 걸으면 좋을 신발이라는 얘기로 들린다. 머렐 측은 “도심 속 워킹은 물론 가벼운 산책, 캠핑 등 언제 어디서든 편한 착용감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원식스에잇은 워킹화 중에서도 초경량 워킹화군에 속하는 제품이다. 워킹화를 신고 걸어본 사람이라면 통기, 방수와 같은 기능도 중요하지만 뒤편 뒰뒰 해도 ‘신발은 가볍고 봐야 한다’는



M 로고가 돋보이는 머렐의 초경량 워킹화 ‘원식스에잇’. 사진제공 I 머렐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투박하고 무거운 워킹화는 사양하고 싶다. 요즘은 산에서 신는 등산화도 가벼운 게 인기다. 원식스에잇은 가볍다. 그런데 가벼움을 만나기 전에 비주얼에 감탄하고 만다. 근년 들어 이렇게 ‘잘 생긴’ 워킹화를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 측면의 M 로고가 멋지다. 이런 걸 자칫 잘못 달아놓으면 엉뚱하게도 “오늘 점심은 햄버거나 먹을까” 하는 마음이 들게 된다. 원식스에잇의 M은 꽤 감각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로 다가온다. 얼른 발을 넣어보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원식스에잇을 신고 툭툭 위 아래로 뛰어보았다. 발바닥으로 쿠셔닝을 느껴보기 위해서다. 지나치게 푹푹거리지 않으면서도 넉넉한 쿠션감. 머렐 에어

쿠션을 장착한 덕일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걸을 때 발에는 상당한 충격이 주어진다. 이 충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흡수하느냐는 온전히 기술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하이 리바운드 미드솔도 발의 편안함과 안정성을 돕는다.

원식스에잇에는 흥미로운 기술 하나가 더 숨겨져 있다. 내피에 적용된 엠-셀렉트 후레쉬이다. 천연 박테리아를 이용한 항균 및 향취 기술이다. 오래 신어도 쾌적하다.

이름처럼 일주일 내내 보고 신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 사관 지 1년이 안된 여친같은 신발이다. 예쁘고, 가볍고, 쾌적하다. 워킹화에게 더 바랄 게 있을까. 입 닫고 걷자.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비즈갤러리

piano44, 중고피아노 고가 매입



잘 사용하지 않는 피아노 처리 때문에 고심하는 이들이 많다. 중고피아노는 보통 이삿짐센터, 중고약기상, 재활용센터에 매물을 내놓지만 제값 받기가 쉽지 않다. 시세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 중고피아노 전문 업체에 감정 받는 것이 우선이다. 이왕이면 중고피아노를 매매, 매입하고자 할 경우 중간 유통이 없고 직접 수출도 같이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 매매 업체의 경우 전 지역 출장 감정이 가능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지역 구분 없이 중고피아노를 매입하기에 비교적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piano44 관계자는 “중고피아노 30년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감정, 매입하고 직수출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취급하고 있고, 국가 공인 조율사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거래 관련 고객 만족도

를 높이고 있다. 비싸게 주고 구입한 피아노를 제값에 팔고 싶다면 국내 총판점 (010-3750-4575)에서 문의하면 된다.

햇살론 서민대출 대환대출 자격조건은?



직장인 신용 대출, 대환 대출 등의 목적으로 햇살론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햇살론은 취급은행마다 자격 조건에 따라 승인률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은 금융사에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대출을 거절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햇살론을 신청하기에 앞서 취급은행별 대환대출 자격조건과 승인률 높은 곳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

다. 햇살론 대출 자격조건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이 6~10등급에 해당하며 연간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또 대부업체, 캐피탈, 카드론 등에서 연 20%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사용 중이라면 최대 3000만원까지 연 8%대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생계 자금을 대출 받을 수도 있다. 한국투자저축은행 햇살론의 경우, 은행 방문 없이 팩스로 서류심사를 하는 무방문 사전팩스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이 적거나 나이가 많아도 햇살론이 가능할 수 있으며, 전국 출장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만약 연소득이 4000만원 이상으로 햇살론 대상이 안 된다면 최근 정부에서 출시한 또 다른 서민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로 가능하다. 햇살론, 사잇돌 대출에 대한 대출자격 확인은 한국투자저축은행 여신수탁법인 (주)론데이 홈페이지(www.loanaday.kr)로 상담신청 하면 된다.

제주 비스타케이4차 호텔 분양 진행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지역에 들어선 ‘비스타케이4차’ 호텔은 총 288실 중 회



사 운영분을 분양 중이다. 5성급 호텔 수준의 비스타케이호텔4차는 별장으로 이용 시 365일 중 선택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운영사가 직접 운영한다. 주변 여행지로는 천지연폭포, 주상절리대, 올레길 등이 있다. 호텔이 위치한 서귀포 지역은 제주 6대 핵심 프로젝트 중 5대 핵심프로젝트(신화역사공원·헬스케어타운·영여교육도시 등)가 진행되는 곳이다. 비스타케이호텔그룹은 서귀포에서 비스타케이 1차, 2차, 3차를 완판했으며 1~4차까지 약 1000개의 객실을 공급한 바 있다. 이미 운영 중인 1차 바로 옆에 들어서는 4차 호텔은 자체 브랜드로 로얄티 없이 운영되기에 보다 높은 수익금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1차의 경우 지난 2015년 7월 오픈한 가운데 2차도 7월 오픈 후 운영 중으로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3차

의 경우 올 연말 준공 예정이다. 비스타케이 4차는 1차 바로 옆에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설계디자인을 적용해 지어질 계획이다. 윈덤그룹 계열사 RCI와 제휴돼 있는 비스타케이호텔 4차는 전 세계 100개국 4500여 개 호텔 및 크루즈를 14일 무료 숙박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자금 관리는 생보부동산신탁에서 관리하며 중도금 무이자이기에 계약금 외에는 준공 때까지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일체 없다”며 “제주 비스타케이4차호텔은 24시간 무료상담과 전국무료출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홍보관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1번지(매봉역 4번 출구 5분 거리)에 있다. 전화문의 02-572-9987.

장기렌트카 비교 ‘수빈아빠카스토리’ 경기 침체 속에서 장기렌트카&오토리스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금융회사들도 마진을 줄인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상품이 많아보니 일일이 정보를 체크해 장기렌트견적을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 장기렌터카 가격비교 전문 업체의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장기렌트카 가격비교 사이트 수빈아빠카스토리(www.sbcarstory.co.kr)가 국산 및 수입 차종을 대상으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증금 없는 장기렌트카 특별 파워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특별 프로모션 적용 대상은 국산차의 경우 현대자동차 장기렌트(아반떼AD, LF쏘나타, 그랜저HG, 쏘나타페, 제네시스EQ900), 기아자동차 장기렌트카(뉴뉴모닝·티뉴K3·올뉴K5·티뉴스포티지·올뉴쏘렌토), 르노삼성자동차(SM3·SM5·SM6·QM6), 쉼보레(더넥스트스파크, 크루즈·올뉴말리부) 쌍용자동차 장기렌트(타볼라·티볼리에어)다. 수입차 장기렌트카로는 BMW 장기렌트카(320D·520D·X1·X4·X6), 벤츠 장기렌트카(C200·C200d·E220d·E300·GLC220d·S350·S500) 등이 해당된다.

편집 I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